

아동의 회상 보고 정확성에 아동의 연령, 양육자의 지지가 미치는 영향

이 승 진[†]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아동과 피고인의 진술 모두는 아동이 연루된 범죄 사건의 법적 판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성인의 실수를 목격한 아동의 진실된 보고가 철회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아동의 연령과 양육자의 정서적 지지가 아동의 진술 철회를 예측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만 5-8세 아동들은 실험자와 인형 놀이를 하는 동안 실험자가 인형을 망가뜨리는 것을 목격하고 이 사실을 비밀로 해 달라는 실험자의 요청을 받았다. 이후 아동은 그 사건에 대한 진실 보고를 유도하는 1차 기억 면담을 받았다. 처치 조건에 따라 아동의 진실된 보고에 대해 주양육자(어머니)가 지지적 혹은 비지지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한 후 아동은 2차 기억 면담을 받았다. 본 연구는 아동의 진실된 보고의 철회 여부를 살펴보았고 아동의 자발적 보고의 특성, 즉 솔직함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이전 진술을 철회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연령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나이 든 아동들(만 7-8세)이 상대적으로 어린 아동들(만 5-6세)보다 2차 면담에서 이전 보고에 대한 철회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더 강했다. 또한 진실된 보고에 대해 지지적으로 반응해 준 어머니의 아동이 2차 면담에서 더 솔직한 반응을 보였으며 비지지적으로 반응한 어머니의 아동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솔직함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이 경험한 부정적 사건에 대한 자발적 회상 보고 시, 양육자의 지지와 같은 영향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률적 맥락에서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현실적인 함의를 제공해 준다.

주제어 : 아동 기억, 양육자 지지, 철회, 폭로, 아동진술

[†] 교신저자 : 이승진,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E-mail : sjmagiclif@gmail.com

사법적 절차에서 오직 목격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수사 사건의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비밀비재하다(송중호, 2014; Brainerd, & Reyna, 2005). 안타까운 것은 목격자가 이후 진술한 바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목격 진술에 근거하여 무고한 피의자가 정당하지 못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목격자가 자신의 진술을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지 이후 철회하거나 이전의 진술을 반복하는 것은 사법적 맥락에서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률적 정의의 관점에서 개인의 진술 철회는 큰 파장을 일으킬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목격한 사건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는 과정에 어떤 심리적 요인들이 개입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아동의 경우 성인과 달리 암시적 정보나 외부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에 취약하게 반응하기 때문에(곽금주, 김연수, 2003; 김효정 2008), 자신의 이전 진술을 철회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 있다(Malloy, Lyon, & Quas, 2007). 특히 성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이 자신의 이전 진술을 반복한다면 진술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사법적 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조은경, 2010).

아동 학대나 아동 성폭력은 국가적인 공공 보건 차원에서도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피해 아동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가능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도록 요구 받는다(Lamb, Hershkowitz, Orbach, & Esplin, 2008). 아동 학대, 특히 아동 성학대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사건 발생에 대한 아동의 사실 폭로(disclosure)가 범죄를 기소하거나 무죄 혐의자의 혐의를 벗겨주는 데, 더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장기적인 보호와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을 결정하는 데

유일한 자료가 될 수 있다(Lippert, Cross, Jones, & Walsh, 2010).

이에 아동의 사실 폭로는 반복된 면담에 걸쳐 일관된 보고를 하는 아동의 능력과 더불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법정 전문가 증언의 주제로도 종종 활용된다(Leippe, Manion, & Romanczyk, 1992; Quas, Thompson, & Clarke-Stewart, 2005).

수년 동안 아동 진술 관련 연구자들은 아동 기억의 역동적 특성과 암시적인 면담 질문이 어떻게 잘못된 보고를 유도하는가에 대해 방대한 연구들을 진행해 왔다(곽금주, 이승진, 2006; 이수정, 김현정, 2008; Bruck, Ceci, & Principe,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한 사건을 부인하는 정도나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경험한 사건에 대한 아동의 폭로와 이에 대한 부정(denial)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은 잘못된 혐의, 거짓 부정,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 회상 보고의 불일치를 유발하는 근거들에 대한 학문적 통찰을 제공함과 더불어 현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철회는 진술 불일치의 한 형태로서 누군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폭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국외에서는 왜 아동이 성학대 진술을 철회하게 되는가에 대한 열띤 논쟁이 이루어져 왔다(London, Bruck, Ceci, & Shuman, 2005; London, Bruck, Wright, & Ceci, 2008).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아동의 진술 철회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인과성 요인이나 상관 요인들을 탐색해 보는 것보다 철회의 발생률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성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아동의 진실된 보고가 철회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우선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에 바탕을 두고 아동이 성인의 행동에 대해 폭로한 이후 그 사실을 철회하는 것이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연령과 양육자의 지지 특성을 중심으로 철회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철회(recantation)와 관련된 이론

철회는 잘못된 혐의에 대한 진술을 취소하는 것으로 London 등(2005)의 연구에서는 명확한 사실에 대한 철회는 드물게 나타나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의심스러운 혐의가 포함된 경우 철회의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어떤 행동의 의도가 명백한 경우보다 의도가 애매하거나 모호한 경우에 그 행동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일관성은 낮을 것이다.

한편 Malloy 등(2007)은 자식 종속 모델(filial dependency model)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아동의 진술 철회가 가족 구성원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만 2-17세 성학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 이론이 전적으로 지지되었다. 예를 들어, 어린 아동이 부모의 의견에 대항하며 성학대의 경험을 주장하거나, 아동의 친어머니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아동의 학대 경험 폭로에 가족 구성원들이 매우 비협조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로 피해 아동이 이후 자신의 진실된 진술을 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현장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사실 폭로에 대한 주양육자(어머니)의 지지를 실험적으로 조작해 보고자 하였다. 즉, 아동의 진실 폭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아동의 연령이 성인의 사소한 부정행

위를 목격한 후 아동의 진실된 보고의 철회와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양육자의 지지

일반적으로 주양육자, 특히 어머니는 아동의 학대 사실에 대해 가장 먼저 정보를 접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Malloy, Brubacher, & Lamb, 2013). 아동 학대 폭로에 대한 주양육자의 정서적 반응은 가해자 처벌에 대한 신념을 보이거나 비난으로부터 보호를 요구하는 등 다양하다(한인영, 박명숙, 유서구, 류소영, 2008; Elliott & Carnes, 2001). 실제 성학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어머니의 반응은 아동이 자신이 겪은 성학대 사건에 대한 사실을 폭로하거나 폭로한 바를 철회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lliott & Briere, 1994; Lawson & Chaffin, 1992; Malloy et al., 2007). 또한 사건을 기소하는 데, 혹은 아동의 이후 거주지를 결정하고 나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도 아동의 진술에 대한 양육자의 지지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oss, De Vos, & Whitcomb, 1994; Goodman et al., 1992; Leifer, Shapiro, & Kassem, 1993). 따라서 주양육자가 성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아동의 폭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아동의 진술 일관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연령

아동의 연령은 비밀 혹은 거짓의 이해도, 성인의 권위에 대한 존중 정도, 도덕적 추론의 발달 정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변인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아동의 연령은 아동이 성인의 행동을 사실대로 폭로하는지 여부(Gordon, Lyon, & Lee, 2014; Lyon, Ahern,

Malloy, & Quas, 2010)와 폭로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 반응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Malloy, Brubacher, & Lamb, 2011; Malloy, Quas, Lyon, & Ahern, 2014). 예를 들어, Malloy 등(2014)의 연구에서는 8-9세의 아동들이 그보다 어린 아동들(6-7세)에 비해 낯선 사람이 아닌 자신의 부모가 잘못된 행위를 범하였을 때 경찰 신고와 같이 형식적이고 규범적인 제재를 위한 폭로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나이 든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어린 아동보다 부모의 잘못된 행위를 숨겨야 하고 폭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더 잘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Bussey, 2010). 그러나 면담자가 개방형이 아닌 직접적 혹은 유도적 형태의 질문을 제공하면 진실에 대한 폭로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Bottoms, Goodman, Schwartz-Kenney, & Thomas, 2002; Lyon, Malloy, Quas, & Talwar, 2008). 게다가 Malloy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확증된 성학대 사건의 경우 전반적인 철회 비율은 23.1% 정도였지만 연령 별로 비교한 결과 6-7세 집단의 경우 다소 낮은 18%로 나타난 반면 8-9세 집단의 철회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41%로 나타났다. 즉, 나이 든 아동이 어린 아동보다 훨씬 철회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연령 범위를 고려하여 만 5-8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연령과 진실 폭로에 대한 관계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연령(만 5-6세 vs. 7-8세)과 아동의 폭로에 대한 양육자 지지의 특성(지지적 vs. 비지지적)을 중심으로 피험자 간 설계를 실시하였다. 아동은 실험자와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실험자가 인형을 망가뜨리는 것을 목격하고 이 사실을 비밀로 해 달라

는 요청을 받았다(Gordon et al., 2014; Talwar, Lee, Bala, & Lindsay, 2004). 이 경험에 대해 아동은 두 번의 면담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면담에서 실험자의 행동을 아동이 폭로하면 각 아동의 어머니는 아동의 폭로에 대해 긍정적으로(지지적 조건) 혹은 긍정적이지 않게(비지지적 조건) 반응하였다. 본 연구진은 비지지적인 조건의 아동이 지지적인 조건의 아동들보다 자신의 폭로를 철회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게다가 비지지 조건에서 나이 든 아동이 어린 아동들보다 실험자의 행위에 대한 사실 폭로를 철회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총 90명의 만 5-8세 아동(평균 86.41개월, 표준편차 13.03, 만 5-6세: 45명, 7-8세: 45명, 48% 남아)을 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는 무선적으로 지지적인 집단(45명) 혹은 비지지적인 집단(45명)에 할당되었다.

연구 샘플의 크기는 검증력 분석(power analysis)에 근거하여(power = .85, α = .05) 아동의 연령과 양육자의 지지에 대한 효과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을 선정하였다. 최종 분석 샘플에서 양육자의 지지 여부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 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양육자의 지지 여부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무관하게 골고루 배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도구 및 절차

연구진은 부모에게 연구의 목표와 연구 가설 등을 포함하여 실험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연구자는 아동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어휘와 태도를 취하며 아동에게 언제든지 연구 참여 도중 그만둘 수 있음을 알려주고 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후 구두 동의를 받았다. 연구진은 아동에게 흥미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놀이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하였으나 이 과정에서는 인형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경험 사건(target event)

아동은 약 15분에 걸쳐 ‘건강과 안전(health and safety)’이라는 놀이에 참여하였다. 이 놀이는 Brown, Lewis, Lamb와 Stephens(2012)에서 고안하고 Malloy 와 Mugno(2016)에서도 사용된 절차로 본 연구에서 차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실제 모형의 인형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진은 유사한 인형 가면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놀이는 구체적인 스크립트에 따라 진행되었다. 우선 실험자는 ‘만지지 마시오!’ 라고 쓰인 상자에 아동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어! 이 상자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내 친구가 이 장난감들을 나중에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거든. 이건 매우 잘 부서지는 것들이라 우리가 가지고 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건드릴 수도 있으니깐 안전하게 이 상자는 내가 저 구석으로 치워둘게’ 라고 말하였다.

아동은 체온을 체크하는 곳, 상처를 치료하는 곳, 그리고 위험한 곳 이렇게 3가지 장소를 실험자와 함께 방문하는 놀이를 하였다.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이 묘사된 여러 포스터

들을 관찰하였다. 그 후 실험자는 ‘만지지 마시오!’라고 쓰인 박스에서 3가지 가면 인형들을 꺼내서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우리가 이 인형들을 만지면 안 되지만 조심스럽게 다루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하면서 실험자는 소방관 가면 인형을 쓰고 아동에게는 의사와 경찰관 가면 인형을 써 보도록 권유하였다. 소방관 인형은 사전에 부서지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실험자가 인형을 쓰려고 하자 부서지고, 실험자는 ‘어머, 어떻게 하지? 내가 이것을 부서뜨려 버렸네. 인형을 만지지 말라고 했었는데 큰일이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옆으로 살짝 치워버려야겠다. 아무한테도 내가 이 인형을 부서뜨렸다는 것을 말하지 말아줄래?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내가 그 인형을 망가뜨린 것이 발각되면 나는 정말 큰일 날 거야’라고 아동에게 천천히 말하였다.

1차 면담

아동과 놀이를 진행하지 않은 또 다른 실험자가 아동이 부서진 인형에 대해 잊어버리기 전에 1차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개정된 NICHD(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미국 국립아동보건·인간개발연구소) 아동 조사면담 프로토콜의 지침대로 진행되었다(Lamb et al., 2008).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이 경험한 사건을 잘 보고할 수 있도록 개방형(open-ended) 질문을 제공하고 아동이 개방형 질문에 더 이상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반개방형(semi open-ended), 선택형(specific) 질문을 제공하였다.

면담자는 사건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아동이 사실과 거짓을 구별하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때는 네게 정말로 일어난 일들, 사실에 한해서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었다. 또한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모른다'고 응답하는 것이 허용되며 면담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혹은 잘못 이야기 하는 경우) 언제든지 수정해도 괜찮다는 것을 명시해 주었다. 간단하게 질문에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 아동은 짧은 연습을 하였다.

면담자 A는 아동과 간단한 라포를 형성한 후 개방형을 이용하여 경험한 사건에 대해 질문하였다(예: '다른 선생님이 '건강과 안전' 놀이에 대해 네게 이야기 했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곳에 없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모두 다 이야기 해 줄 수 있겠니? 네가 기억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 해 주면 좋겠어').

개방형 질문에 대해 더 이상 아동의 보고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면담자는 자유 회상 과정에서 적절한 단서 초대(cue invitation) 방식을 활용하여 각 기억 항목들에 대해 아동이 추가적인 회상을 할 수 있도록 반개방형 질문을 덧붙였다(예: '네가 체온을 체크 했다고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 해 줄 수 있겠니?', '인형 놀이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 해 줄 수 있겠니?',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 등). 이와 같은 질문들은 사건과 관련한 세부 사항들에 대해 아동이 자발적인 회상 보고를 더 제공할 수 있도록 연관 질문을 제공함으로써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 면담자가 그 어떤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거나 아동이 제공한 정보를 수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동의 자발적 회상이 종료되고 나면 면담자는 아동에게 일련의 선택형 질문들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위계적 형태의 질문은 아동의 자발적 회상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선택형 질문은 '무엇' 혹은 '네/아니오' 형태의 질문으로 경험 사건과 관련된 세부사항들을 포함하였다(예: '얼마나 많은 장소를 방문했니?', '네가 어떤 인형을 만졌니?', '그 인형 중에 하나를 네가 망가뜨렸니?', '그 선생님이 인형 중에 하나를 망가뜨렸니?'). 이 질문이 끝나고 나면 암시적인 정보가 포함된 질문을 제공하였다(예: '네가 그 선생님의 귀에 체온을 잰다고 하던데 그랬니?', '그분은 왜 네게 그 장소에서 안아주셨니?'). 또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공하였다('네가 그 인형들 중 하나를 써 보았니?', '그 선생님이 이 인형을 망가뜨렸을 때 즐거워 하셨니, 아니면 화가 나셨니?', '어떤 인형을 그 선생님이 부러뜨렸니?'). 아동이 이와 같은 암시적 정보가 포함된 질문에도 망가진 인형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경우 면담자는 마지막으로 망가진 인형을 아동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내가 보기에 이 인형이 부서진 것 같아. 이것과 관련해서 말해 줄 수 있겠니?'라고 질문하였다.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

아동의 언어 발달 수준이 회상 보고의 양과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또 다른 면담자(면담자 B)가 그림 어휘력 검사(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 PPVT) 한국판을 실시하였다(김영태, 장혜성, 임선숙, 백현정, 1995). 이 도구는 국제적으로 아동의 수용적 어휘 능력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도구로 아동 기억 연구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Dunn & Dunn, 2007). 아동의 언어 능력 평가가 종료되고 나면 면담자는 양육자 지지의 실험 조작을 위해 그 방을 떠났다.

아동의 폭로에 대한 양육자의 지지 여부

아동은 실험 조작에 따라 지지적인 어머니와 비지지적인 어머니 집단에 무선으로 할당되었다. 아동의 어머니는 연구원과 사전에 연습한대로 아동과 상호작용을 하였다. 비지지 조건의 어머니는 ‘나는 그 선생님이 인형을 부서뜨렸다고 네가 말한 것을 우연히 들었어. 혹시라도 그 분이 그것 때문에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가 또 그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사람이 부서뜨린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렴’이라고 말하여 아동과 상호작용을 시도하였다. 지지 조건의 어머니는 ‘나는 네가 그 선생님이 인형을 부서뜨렸다고 말한 것을 우연히 들었어. 사실대로 말한 것은 참 잘한 일이야. 누군가가 또 그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실대로 말할 수 있도록 하렴’이라고 말하였다. 어머니들은 최대한 간명하게 주어진 스크립트대로 아동과 상호작용하고 대화를 하도록 훈련 받았다.

2차 면담

아동이 어느 집단에 배정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면담자(면담자 B)가 아동의 어머니가 방을 떠난 후 들어왔다. 아동이 사전 폭로를 철회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담자는 1차 면담과 동일하게 아동에게 개방형, 선택형, 암시적 질문을 연이어 제공하였다. 면담자는 아동이 이미 그 사건에 대해 다른 면담자와 이야기한 것을 알고 있지만 1차 면담의 면담자가 기록한 노트를 잃어버렸다고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거나 틀린 말을 한다면 언제든지 정정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하고 면담을 시작했다. 2차 면담을 진행하는 면담

자는 이미 아동의 언어 발달 수준을 검사할 때 아동과 친밀한 상호작용이 있었으므로 이 면담을 위해 추가적으로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은 생략하였다.

아동 및 부모의 자가 보고 측정치

아동과 부모 관계의 질적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아동의 애착과 부모의 양육 스타일 등에 대해 살펴보는 부모의 양육 유형 및 범주 질문지(Parenting Styles and Dimensions Questionnaire; Robinson, Mandlco, Olsen, & Hart, 2001), 아동-부모 관계 질문지(Child-Parent Relationship Scale; Pianta, 1992), 애착 안정성 질문지(Attachment Security Scale; Kerns, Klepac, & Cole, 1996)를 실시하였다. 참여 아동 중 절반에게는 이 설문지들을 실험 초반에 제시하였고 절반은 실험이 종료된 후 제시하였다.

사후 설명

실험이 종료되고 난 후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연구자는 아동에게 그 인형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전에 이미 망가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누구도 이 문제로 곤경에 처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또한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의 역할은 아동이 경험한 사실들에 대해 어떻게 회상하고 진술하는가를 살펴보는 연구를 돕는 역할이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에게는 경험한 바를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여 설명해 주었다. 아동은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작은 선물을 제공받았다.

코딩

우선 1차 면담에서 아동이 인형을 언급하였

는지를 코딩하였다(0 = 언급하지 않음, 1 = 언급함). 또한 아동이 인형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코딩하였다(0 = 인정하지 않음, 1 = 인정함). 또한 1차 면담에서 아동의 인형이 망가졌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질문 단계를 기록하였다. 즉, 개방형 질문, 선택형 질문, 암시형 질문, 마지막 인형을 보여준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인형이 망가졌다는 보고를 제공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아동이 반응한 그 특정 질문을 체크하였다.

또한 2차 면담에서 아동의 철회 여부를 코딩하였다(0 = 철회하지 않음, 1 = 철회함). 여기서 철회는 인형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아동이 명백하게 부인할 때로 정의하였다. 아동이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혹은 ‘말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비밀이거든요’ 등과 같은 의미로 표현한 경우는 철회로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2차 면담에서 아동이 개방형, 선택형, 암시형의 3가지 질문 형태 중에 어느 질문에서 철회를 최초로 보이는지를 기록하고 아동이 철회를 한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하였다.

한편 아동의 철회 여부를 기록함과 더불어 1, 2차 면담에서 아동의 솔직함을 평가하였다. 이는 ‘그 인형들 중 하나를 만졌니?’ 혹은 ‘그 분이 그 인형들 중 하나를 망가뜨렸니?’와 같은 질문에 대한 아동 반응을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함이다. 특히 1차 면담과 2차 면담에서 아동의 응답이 변화하는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차 면담에서는 개방형 질문에서 망가진 인형에 대해서 폭로하지 않았으나 2차 면담에서는 개방형 질문에 자발적으로 폭로한 아동을 ‘더 솔직해진 아동(more forthcoming)’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선택형 질문에서 자신의 응답을 바꾼 아

동, 즉 1차 면담에서는 망가진 인형에 대해 부인했는데 2차 면담에서는 시인을 했다거나, 1차 면담에서는 ‘잘 모르겠다’로 응답했는데 2차 면담에서는 시인을 한 경우의 아동도 ‘더 솔직해진 아동(more forthcoming)’으로 코딩하였다.

반면 선택형 질문에서 자신의 응답을 바꾼 아동 중 1차 면담에서는 망가진 인형에 대해 폭로했는데 2차 면담에서는 부인했거나, 1차 면담에서는 망가진 인형에 대해 폭로했는데 2차 면담에서 ‘모르겠다’는 응답으로 바꾼 경우 ‘덜 솔직해진 아동(less forthcoming)’으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자의 실수를 최소화하려는 아동의 노력에 해당되는 발언, 예를 들어 ‘그것은 실수였어요. 그 선생님이 완전히 망가뜨린 것은 아니고요, 실수로 부러졌어요’ 등의 표현이 제공되었는지 여부 또한 코딩되었다(0 = 실험자의 잘못을 감싸는 표현을 제공하지 않음, 1 = 제공함).

각 항목들에 대해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코딩하였으며, 이들은 아동의 연령과 양육자의 지지 조건에 대한 정보는 알지 못하였다. 모든 항목의 평정자 간 일치도는 높게 나타났다($kappas > .90$).

결 과

사전 분석

사전 분석을 통해 전체 참여 아동 100명 중 6명의 아동은 1차 면담에서 망가진 인형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분석에서 제외되었다(만 7세 2명, 8세 4명). 또한 아동이나 어머니의 스케줄상 실험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한 아동 3명, 면담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한 아동 1명의 결과 역시 최종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사전 분석에 의해 제외된 아동들과 제외되지 않은 아동들의 인구학적 정보(연령, 성별)와 실험 처치 조건(양육자의지지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아동의 철회 여부는 인구학적 변인과 아동의 애착, 부모의 양육 스타일 등을 살펴보는 설문지의 점수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으며, 이는 적어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에 의해 평가된 아동과 부모 관계의 질적 차이가 성인의 행동을 폭로하거나 혹은 폭로한 바를 철회하는 과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 보고 설문지 실시 시점이 실험 전인지 후인지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수용적 언어

발달 수준과 양육자의 지지 조건에 따른 철회 여부와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이후 분석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1차 면담에서 성인의 행동에 대해 아동의 최초 폭로

면담자의 개방형 질문에 아동이 자발적으로 망가진 인형을 폭로하는 경우는 전체 아동 중 22%, 선택형 질문에서는 37%, 암시형에서 31%, 망가진 인형과 대면하였을 때 10%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22명의 아동이 자유 회상 과정에서 인형을 언급하였고 인형을 언급한 아동의 대부분은 망가진 인형에 대해 폭로하였다(90.9%, $n = 20$). 나머지 2명의 아동은 선택형 질문에서 망가진 인형에 대해 폭로하였다.

나이든 아동과 어린 아동이 개방형 질문에 아동이 자발적으로 망가진 인형을 폭로하는

표 1. 1차, 2차 면담에서 면담에서 부러진 인형에 대해 아동이 최초로 폭로한 질문 형태

		아동의 수 ($n = 90$)	
개방형 질문		20 total	40 total
		33 total	22 total
선택형 질문	A. 그 방에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어?	4	4
	B. 누가 그 인형들 중 하나를 망가뜨렸어?	12	10
	C. 그 선생님이 그 인형들 중 하나를 망가뜨렸어?	17	18
암시형 질문		28 total	26 total
	A. 너는 그 인형들 중 하나를 써 봤어?	3	3
	B. 그 방에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어?	4	3
	C. 그 선생님이 그 인형을 망가뜨렸을 때 즐거워했어, 아니면 화를 냈어?	16	18
대면	D. 그 선생님이 망가뜨린 인형은 어떤 거였어?	5	2
		9 total	2 total

경우는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각 10명씩) 나이 든 아동들은 선택형($n = 12$)과 암시형 질문($N = 14$)에 유사한 수준의 폭로 경향을 보였고 대면 상황($n = 9$)에서도 폭로를 하였으나 어린 아동들은 대면 상황에 가기 전에(선택형, $n = 21$, 암시형 $n = 14$) 모두 폭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 N = 23) = 11.46, p < .001, \phi = .361$).

아동의 초기 폭로와 관련하여 면담이 시작된 시점과 폭로하는 시점 간의 시간차도 살펴 보았는데 이에 대한 연령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즉, 어린 아동이라고 해서 더 빨리 폭로하고 나이 든 아동이라고 해서 더 늦게 폭로하는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2차 면담에서 성인의 잘못에 대한 아동의 철회

90명의 아동 중 25.5%($n = 23$)가 2차 면담에서 적어도 한 번은 망가진 인형에 대한 사전 폭로를 철회하였다. 본 연구진의 가설과 같이 양육자의 지지는 아동의 철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지지가 제공된 조건에서는 그 어떤 아동도 자신의 이전 보고를 철회하지 않았다. 그러나 비지지 조건의 아동 중에서는 45명 중 23명(51.1%)이 성인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폭로를 철회하였다($\chi^2(1, N = 90) = 30.89, p < .001, \phi = .591$).

철회한 23명의 아동 중 대부분이 선택형 질문에 철회를 보였고(82.6%, $n = 19$), 한 명의 아동은 자유 회상 단계에서(4%), 3명의 아동은 암시형 질문 단계(13%)에서 철회하였다.

2차 면담동안 자신의 철회를 유지한 아동의 대다수는 나이 든 아동들이었다(69.6%, $n = 16$, 어린 아동 $n = 7$), ($\chi^2(1, N = 23) = 4.73$,

Fisher's exact = .052, $\phi = .231$).

솔직함의 정도

2차 면담에서 아동이 자신의 이전 진술을 철회하는 가 뿐만 아니라 망가진 인형에 대해 얼마나 솔직하게 반응하는가도 살펴보았다. 즉, 인형과의 접촉 여부 등을 질문하여 아동의 솔직한 반응이 아동의 연령과 양육자의 지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실험자의 행동에 대한 아동의 솔직함은 개방형 질문 시 아동의 폭로가 1차 면담에서 2차 면담으로 진행되면서 증가하는지 여부를 통해 살펴보았다.

참여 아동의 22.2%($n = 20$)가 1차 면담의 개방형 질문에 망가진 인형에 대해 언급하였고, 44.4%($n = 40$)는 2차 면담의 개방형 질문에 망가진 인형에 대해 언급하였다. 양육자 지지의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양육자의 지지가 제공되는 조건에서는 77.7%($n = 35$)의 아동이 1차 면담의 개방형 질문에서 폭로하지 않은 반면, 2차 면담에서는 개방형 질문에서 망가진 인형에 대해 폭로하였다. 반면 비지지 조건의 경우 1차 면담의 개방형 질문에서 폭로한 아동 10명 중 절반이 2차 면담에서는 망가진 인형에 대해 시인하지 않았다($\chi^2(2, N = 90) = 19.87$, Fisher's exact < .001, $\phi = .471$).

두 번째로 연구진은 선택형 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 예를 들어 '그 선생님이 그 인형들 중 하나를 망가뜨렸니?'와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아동이 변경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참여 아동의 절반 정도가 1차 면담과 2차 면담에서 이 질문에 다른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51%, $n = 46$). 이러한 응답의 변화는 양육자의 지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hi^2(2, N = 90) = 30.06$, Fisher's exact $< .001$, $\phi = .58$]. 이 질문에 다른 응답을 보인 46명의 아동 중 2차 면담에서 '덜 솔직해진 아동'으로 분리되었던 15명의 아동, 즉 1차 면담에서는 망가진 인형에 대해 폭로했지만 2차 면담에서는 부인했던 아동은 모두 양육자의 비지지 조건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고, 2차 면담에서 더 솔직해진 아동, 즉 1차 면담에서는 망가진 인형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으나 2차 면담에서 시인한 아동 31명 중 25명(82%) 양육자의 지지 조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면담과 2차 면담에서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한 아동, 즉 자신의 응답을 변경하지 않은 아동 44명 중 53.3%($n=24$)은 양육자의 비지지 조건에서 44.4%($n=20$)은 양육자의 지지 조건에서 나타났다.

또한 암시형 질문, 즉 '그 인형들 중 하나를 써 봤어?'와 같은 질문에 아동의 반응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아동의 절반 이상이 1차 면담과 2차 면담에서 응답을 변경하였다(51%, $n = 46$). 1차 면담에서는 인형을 만진 것을 인정했으나 2차 면담에서는 부인하여 '덜 솔직해진 아동'으로 분류된 10명 모두는 양육자의 비지지 조건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차 면담에서 인형을 만진 것을 부인했으나 2차 면담에서 인형을 만진 것을 인정하여 '더 솔직해진 아동'으로 분류된 아동 중 25명은 양육자의 지지가 제공된 조건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 N = 90) = 8.45$, Fisher's exact $< .001$, $\phi = .45$).

1차 면담과 2차 면담에서 일관된 반응을 유지한 아동의 비율은 양육자의 비지지 조건에서는 54.5%($n = 24$), 지지 조건에서는 45.4%($n = 20$)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1차 면담과 2

차 면담에서 응답의 변경 여부를 통해 측정된 아동의 솔직함과 관련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령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자의 잘못에 대한 최소화 반응

1차 면담에서 33.3%($n = 30$)의 아동이 실험자의 잘못을 최소화하였고, 2차 면담에서 47.8%($n = 43$)의 아동이 실험자의 잘못을 최소화하려는 표현을 제공하였다. 카이스퀘어 분석에 따르면 1차 면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2차 면담에서는 실험자의 잘못을 최소화하는 표현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 N = 90) = 5.39$, $p < .05$, $\phi = .25$]. 만 7-8세 아동 중 60%($n = 27$), 5-6세 아동 중 35.6%($n = 16$)이 2차 면담에서 실험자의 잘못을 최소화하려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2차 면담에서 실험자의 잘못된 행위의 최소화 반응에서 양육자의 지지에 따른 유의한 차이도 나타났다($\chi^2(1, N = 90) = 10.02$, $p < .05$, $\phi = .33$]. 양육자의 지지가 제공되는 조건에서 그렇지 않은 조건에 비해 실험자의 잘못을 최소화하는 반응을 더 많이 보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진술 철회에 관한 현장 자료의 분석 결과(Bruck & Ceci, 2009; London et al., 2005, 2008; Lyon, 2007; Pipe, Lamb, Orbach, & Cederborg, 2007)들을 실험적으로 살펴본 연구이다. 연구 결과 아동의 철회에 대한 양육자의 특정 반응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사실 폭로에 대해 양육자로부터 비지지적인 반응이 제공되는 경우 아동은 이전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폭로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양육자가 아동으로부터 진실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 함의를 제공해 준다. 본 연구 결과는 현장에서 아동 진술을 평가하거나 아동 면담을 진행하는 전문가들이 아동 진술의 비밀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거나 아동 진술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아동의 솔직한 반응이 면담자의 행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면담자와 아동이 진실을 말할 것을 약속하거나, 면담자가 아동의 자백을 추정하는 경우 아동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다(Lyon et al., 2008; Lyon, Wandrey, Ahern, Licht, Sim, & Quas, 2014). 본 연구는 면담자의 특성 혹은 면담의 환경적 영향을 차치하고서 폭로하고자 하는 아동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동의 폭로에 대한 양육자의 비지지적인 언어적 반응은 아동의 솔직한 반응을 감소시켰고 아동의 폭로에 지지적으로 반응했던 양육자의 반응은 아동으로 하여금 솔직한 보고를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전체 아동 중 26%가 자신의 이전 폭로를 철회하였다. 꽤 많은 아동들이 ‘그 선생님이 망가뜨린 인형은 어느 것이었어?’와 같이 매우 암시적인 질문을 제공받았을 때조차도 2차 면담 시 자신의 진술 철회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진의 가설과 같이 양육자의 지지 특성은 아동의 철회 여부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비지지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집단의 아동 중 51%(45명 중 23명)가 자신의 사전 폭로를 철회하였다. 반면 지지적인 피드백을 제공한 어머니 집단의 아동 중 자신의 폭로를 철회한 아동은 없었다. 이는 적어도 성인이 소소한 잘못된 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양육자의 반응에 따라 아동의 자발적인 철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자식 의존 모델의 경우와 일치하는 결과인데, 경험한 사실에 대한 아동의 폭로에 양육자가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아동이 타인의 행동에 대한 보고를 신뢰롭게 유지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 구성원 혹은 가까운 성인이 아동이 진술한 사실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제공하는 경우 철회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실 상황의 연구였기에 면담에 협조하고 사실대로 보고하고자 하는 아동의 동기가 실제 조사 면담의 상황보다는 당연히 더 높았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으로 하여금 개방형 질문을 통해 사실을 보고하게 하는 법, 즉 아동으로부터 진실된 보고를 유도하는 효과적이고 비암시적인 방안에 대해 알려 주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양육자가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동의 솔직한 반응이 향상된다는 사실을 미루어볼 때 진술조사자가 아닌 양육자의 간단한 개입(intervention)만으로도 아동의 솔직한 반응이 증가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한편 분석 대상 문항은 아니었으나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전체 아동 중 10명) 자신의 어머니에게 인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는 사실에 동의하였다. 평범한 실험

상황에서도 아동들이 자신의 부모와 의논한 바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은 실제 아동 학대 사건에서 가족의 압력이나 부모의 사전 코칭에 의해 특정 사실들이 밝혀지는 것이 아동의 입장에서 매우 불편한 일일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표는 아동의 연령과 철회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것인데, 본 연구의 연령 범위는 철회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연령차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선택되었으며(Malloy et al., 2007), 철회 후 아동의 태도에 발달적 차이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졌다(Lyon et al., 2010; Malloy et al., 2014). 본 연구에서도 철회에 있어 아동의 연령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연령 범위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만 5-8세) 상대적으로 나이 든 아동은 2차 면담에서 자신의 철회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더 강했고 이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이 부모의 피드백에 의해 더 잘 설득될 수도 있고 혹은 사실과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철회를 유지할 수도 있음을 함의한다.

Malloy 등(2007)의 현장 자료 분석에 의하면 8-9세 아동은 자신의 진술 철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잘 인지하거나, 학대로 인해 누군가가 비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같은 철회의 압력을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진의 목표는 아동의 폭로에 대한 양육자의 지지 조작을 통해 양육자가 제공하는 언어적인 피드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었고, 만 5-6세 아동들에게도 어려운 실험 조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비지지적인 피드백의 경우 어머니가 성인의 실수를 부인하는 것, 혹은 잠정적으로 아동이 이전 폭로를 철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아동이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피드백, 즉 아동의 진술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의 사실 폭로에 대해 회의를 표현하는 것과 같은 아주 미묘한 언어적 혹은 정서적인 비지지적인 반응들을 포함하고 어떤 피드백도 제공하지 않는 중립적 조건의 통제 집단도 포함하여 보다 넓은 연령을 고려한 탐색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대다수의 아동이 성인의 잘못된 행위를 1차 면담에서 폭로했다는 사실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실제 수사사건이 공식적인 조사 기관에 접수되기 전에 많은 사적인 기관에서 면담이 진행될 수 있고 따라서 이후 아동이 누구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따라 진술의 철회가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 현장 연구들은 양육자의 언어적 피드백이 아동으로 하여금 초기 폭로의 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지만(Lawson & Chaffin, 1992),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해 적어도 인과적인 관계성을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아동이 사실 폭로를 철회하게 되는 이유들에 초점을 두었다. 비록 매우 암시적인 질문이 제공될 때까지도 폭로하지 않은 아동도 존재하지만 아동이 사실을 폭로한 후 얼마나 자주 혹은 어떤 조건에서 자신의 진술을 철회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아동 진술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 후속 연구에서는 초기 폭로의 상황적인 맥락이 아동의 진술 철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아동이 타인의 행동에 대한 목격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 개방형 질문보다

직접적인 질문이 주어졌을 때 사실 폭로가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Lyon et al., 2008). 개방형 질문에서는 22%의 아동만이 실험자의 행동을 폭로하였으며 대부분 인형을 전략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40% 이상의 아동이 부러진 인형을 대면하거나 마지막 단계의 암시형 질문까지 제공되었을 때 실험자의 잘못을 폭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아동의 45% 이상이 실험자의 잘못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언어적 반응을 보여 주었으며 결국 자신과 매우 짧게 상호작용을 한 실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기를 보였다. 스크립트가 ‘오, 안 돼! 내가 그것을 부서뜨려 버렸어’라고 제시되었기 때문에 아동의 입장에서 실험자의 행동이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실수’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실험자의 잘못을 최소화하고자하는 동기가 활성화 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면담자가 ‘그 선생님이 그 인형을 부서뜨렸어?’와 같은 단순한 네/아니오 질문을 제공했을 때조차도 실험자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이 정교하게 응답하며 실험자의 행동을 두둔하고자 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자의 행동이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행동인 경우에도 아동이 실험자의 행동을 최소화하는 언어적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한계점은 현실에서의 아동 학대와 실험실에서 망가진 장난감의 사건은 사건 그 자체만으로도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생태학적 타당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의 조사 면담 시의 진술 맥락과 유사하게 설계되었다. 우선 실험자의 행동은 많은 단서들을 통

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인형은 애초에 만지면 안 되는 것으로 언급되었으며, 실험자는 곤경에 처할까봐 걱정하는 표현을 분명히 제시하였고, 비밀을 지켜달라고 아동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실험자는 아동에게 두 종류의 인형을 만지게 하였기에 부분적으로 아동도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착각하였을 수도 있다. 현장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 피해 아동은 학대 사건에 대해 ‘자기 비난’을 종종 보이는데 학대 사건에 대해 본인이 무엇인가 공모했다는 느낌을 받고 따라서 자신에게 닥칠 좋지 않은 결과를 우려하여 폭로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Malloy et al., 2011; Quas, Goodman, & Jones, 2003). 따라서 본 연구의 경험 사건도 이와 같은 아동의 정서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실제 학대 사건의 경우 본 연구에서의 환경과 달리 아동의 사실 폭로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협박이 오고갈 수도 있고 수사 사건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스스로 철회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도 있으며 기타 주변의 다른 성인들이 그런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건은 아동 학대의 사건 만큼 심각한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사건은 아니지만 양육자에 의한 심리적 압력(pressure)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자의 언어적 피드백의 특성에 따라 아동이 폭로한 바를 철회하는지 혹은 기억나지 않는다/모르겠다 등으로 반응하는지의 정도만을 탐색해 보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사건 경험 후 면담의 지연 정도, 폭로한 바에 대한 타인의 반응 간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 결과는 실제 범죄 사건처럼 사건에 대한 기억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합의를 제공해 줄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실제 범죄 사건에 대한 아동 진술의 비일관성은 기억 면담 자체가 사건을 경험한 후 수일이 지난 후 혹은 수개월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아동이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사전 진술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차 면담과 2차 면담 사이 시간적 지연이 짧았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두 기억 면담 사이에 조금 더 긴 지연 시간을 두고 아동의 철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동의 철회는 성인의 잘못을 부인했다가 이후 면담에서 성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혹은 이전 면담에서는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후 면담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아동의 진술 ‘철회’로 인정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장 연구와 실험실 연구 모두 아동이 자신의 이전 폭로를 철회하는 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는 아동의 철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Jinich & Litrownik, 1999).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경험적인 탐색을 통해 아동의 사실 폭로를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사실 폭로에 대한 양육자의 언어적 지지를 증가시키는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성을 함의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면담에서 아동과 면담자 사이에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진술 철회가 면담자의 특성과 무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면담자의 특성에 따라 양육자의 지지 효과도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약컨대 본 연구는 아동 진술의 비일관성

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범죄 피해 아동의 경우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폭로에 대한 비지지적인 반응을 경험할 것이고 많은 아동들은 공식적인 면담 상황이 아닌 무수히 많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회동기적인 영향으로 인해 사건에 대한 진실된 반응을 철회하고자 하는 욕구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일관되게 아동이 성인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신의 이전 진술을 철회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제공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Bruck et al., 2006).

본 연구는 거짓 혐의에 대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사건의 진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거짓으로 부인하는 반응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매년 증가하는 아동 학대 사건에서 아동 조사 면담을 담당하는 현장의 관련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아동이 철회를 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해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학대 사건에 대한 아동의 비밀 유지 가능성과 목격한 사실에 대한 폭로의 가능성 그리고 폭로에 대한 철회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로 후속 관련 연구들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곽금주, 김연수 (2003). 취학전 아동증언에서 참여여부, 질문 및 질문자의 특성에 따른 기억의 정확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2), 1-19.
- 곽금주, 이승진 (2006). 아동 증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2), 13-40.

- 김영태, 장혜성, 임선숙, 백현정 (1995). 그림어휘력검사.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효정 (2008). 사회적 지지가 아동 증언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 송종호 (2014).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 조은경 (2010).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 신빙성 평가의 한계와 전망. *피해자학연구*, 18(2), 47-60.
- 이수정, 김현정 (2008). 아동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고려해야 할 요인. *한국범죄학*, 2(2), 105-137.
- 한인영, 박명숙, 유서구, 류소영 (2008). 아동청소년 성학대 피해증상의 영향요인 성학대 피해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5(1), 327-356.
- Bottoms, B. L., Goodman, G. S., Schwartz-Kenney, B., & Thomas, S. N. (2002). Understanding children's use of secrecy in the context of eyewitness reports. *Law and Human Behavior*, 26, 285-313.
- Brainerd, C. J., & Reyna, V. F. (2005). *The science of false memor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D. A., Lewis, C. N., Lamb, M. E., & Stephens, E. (2012). The influences of delay and severity of intellectual disability on event memory in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0, 829-841.
- Bruck, M., Ceci, S. J., & Principe, G. F. (2006). The child and the law. In K. A. Renninger, I. E. Sigel,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Child psychology in practice* (6th ed., pp. 776-816). Hoboken, NJ: John Wiley.
- Bruck, M., & Ceci, S. J. (2009). Reliability of child witnesses' reports. In J. L. Skeem, K. S. Douglas, & S. O. Lilienfeld (Eds.),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courtroom: Consensus and controversy* (pp. 149-171). New York: Guilford.
- Bussey, K. (2010). The role of promises for children's trustworthiness and honesty. In K. J. Rotenberg (Ed.), *Interpersonal trust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155-17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oss, T. P., De Vos, E., & Whitcomb, D. (1994). Prosecution of child sexual abuse: Which cases are accepted? *Child Abuse and Neglect*, 18, 663-677.
- Dunn, L. M., & Dunn, L. M. (2007). *The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fourth edition*.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Elliott, D. M., & Briere, J. (1994). Forensic sexual abuse evaluations of older children: Disclosures and symptomatology.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12, 261-277.
- Elliott, A. N., & Carnes, C. N. (2001). Reactions of nonoffending parents to the sexual abuse of their child: A review of the literature. *Child Maltreatment*, 6, 314-331.
- Goodman, G. S., Taub, E. P., Jones, D. P., England, P., Port, L. K., Rudy, L., et al (1992). Testifying in criminal court: Emotional effects on child sexual assault victim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7(5, Serial No. 229).
- Gordon, H. M., Lyon, T. D., & Lee, K. (2014). Social and cognitive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cret-keeping for a parent. *Child Development*, 85, 2374-2388.

- Jinich, S., & Litrownik, A. J. (1999). Coping with sexual abus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videotape intervention for nonoffending parents. *Child Abuse and Neglect*, 23, 175-190.
- Kerns, K. A., Klepac, L., & Cole, A. (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s of security in the child-mother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2, 457-466.
- Lamb, M. E., Hershkowitz, I., Orbach, Y., & Esplin, P. W. (2008). *Tell me what happened: Structured investigative interviews of child victims and witnesses*. Hoboken, NJ: John Wiley.
- Lawson, L., & Chaffin, M. (1992). False negatives in sexual abuse disclosure interviews: Incidence and influence of caretaker's belief in abuse in cases of accidental abuse discovery by diagnosis of ST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7, 532-542.
- Leifer, M., Shapiro, J. P., & Kassem, L. (1993). The impact of maternal history and behavior upon foster placement and adjustment in sexually abused girls. *Child Abuse and Neglect*, 17, 755-766.
- Leippe, M. R., Manion, A. P., & Romanczyk, A. (1992). Eyewitness persuasion: How and how well do fact finders judge the accuracy of adults' and children's memory repor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181-197.
- Lippert, T., Cross, T. P., Jones, L., & Walsh, W. (2010). Suspect confession of child sexual abuse to investigators. *Child maltreatment*, 15(2), 161-170.
- London, K., Bruck, M., Ceci, S. J., & Shuman, D. W. (2005). Disclosure of child sexual abuse: What does the research tell us about the ways that children tell?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1, 194-226.
- London, K., Bruck, M., Wright, D. B., & Ceci, S. J. (2008). Review of the contemporary literature on how children report sexual abuse to others: Findings, methodological issues, and implications for forensic interviewers. *Memory*, 16, 29-47.
- Lyon, T. D. (2007). False denials: Overcoming methodological biases in abuse disclosure research. In M. E. Pipe, M. E. Lamb, Y. Orbach, & A. C. Cederborg (Eds.), *Disclosing abuse: Delays, denials, retractions, and incomplete accounts* (pp. 41-62). Mahwah, NJ: Lawrence Erlbaum.
- Lyon, T. D., Ahern, E. A., Malloy, L. A., & Quas, J. A. (2010). Children's reasoning about disclosing adult transgressions: Effects of maltreatment, child age, and adult identity. *Child Development*, 81, 1714-1728.
- Lyon, T. D., Malloy, L. C., Quas, J. A., & Talwar, V. A. (2008). Coaching, truth induction, and young maltreated children's false allegations and false denials. *Child Development*, 79, 914-929.
- Lyon, T. D., Wandrey, L., Ahern, E., Licht, R., Sim, M. P., & Quas, J. A. (2014). Eliciting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s transgression disclosures: Narrative practice rapport building and a putative confession. *Child Development*, 85, 1756-1769.
- Malloy, L. C., Brubacher, S. P., & Lamb, M. E. (2011). Expected consequences of disclosure revealed in investigative interviews with suspected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5, 8-19.
- Malloy, L. C., Brubacher, S. P., & Lamb, M. E. (2013). "Because she's one who listens": Children discuss disclosure recipients in forensic interviews. *Child Maltreatment*, 18, 245-251.
- Malloy, L. C., Lyon, T. D., & Quas, J. A. (2007). Filial dependency and recantation of child sexual abuse alleg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6, 162-170.
- Malloy, L. C., & Mugno, A. P. (2016). Children's recantation of adult wrongdoing: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45, 11-21.
- Malloy, L. C., Quas, J. A., Lyon, T. D., & Ahern, E. C. (2014). Disclosing adult wrongdoing: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s expectations and preference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24, 78-96.
- Pianta, R. C. (1992). *Child-Parent Relationship Scale*. Unpublished measure, University of Virginia.
- Pipe, M. E., Lamb, M. E., Orbach, Y., & Cederborg, A. C. (2007). Seeking resolution in the disclosure wars: An overview. In M. E. Pipe, M. E. Lamb, Y. Orbach, & A. C. Cederborg (Eds.) *Child sexual abuse: Disclosure, delay, and denial* (pp. 3-10). Mahwah, NJ: Lawrence Erlbaum.
- Quas, J. A., Goodman, G. S., & Jones, D. P. H. (2003). Predictors of attributions of self-blame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in sexu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4, 723-736.
- Quas, J. A., Thompson, W. C., & Clarke-Stewart, K. (2005). Do jurors "know" what isn't so about child witnesses? *Law and Human Behavior*, 29, 425-456.
- Robinson, C. C., Mandleco, B., Olsen, S. F., & Hart, C. H. (2001). The Parenting Styles and Dimensions Questionnaire (PSDQ). In B. F. Perlmutter, J. Toulaitos, & G. W. Holden (Eds.), *Handbook of family measurement techniques. Instruments and index* (Vol. 3, pp. 319-321). Thousand Oaks, CA: Sage.
- Talwar, V., Lee, K., Bala, N., & Lindsay, R. C. L. (2004). Children's lie-telling to conceal a parent's transgression: Legal implications. *Law and Human Behavior*, 28, 411-435.

논문 투고일 : 2016. 08. 12
1 차 심사일 : 2016. 08. 19
게재 확정일 : 2016. 10. 06

Exploration of Children's Age and Parental Emotional Supportiveness that Impact the Accuracy of Children's Memory

Lee, Seungjin

Sang-Huh College, Konkuk University

Both the child's and defendant's testimonies play crucial roles in the court's ruling of a child abuse case. Thus, empirical studies examining a child's truthful report, that is, disclosure, of his or her experience and recantation of the disclosure have manifold practical implications.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how easily a child recants his or her testimony after witnessing and disclosing an adult engaging in a small mistake.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child's age and emotional support from his or her caregiver predict the recantation of the child's testimony. Children of age 5-8 years played with dolls with the experimenter and witnessed the experimenter breaking the doll mask. The experimenter asked the children to keep it a secret. Then the children had the first memory interview, during which the interviewer induced the child to disclose the incident. Based on the treatment conditions, some children were provided supportive feedback while other received unsupportive feedback from their primary caregivers (mother) regarding the disclosure, then were interviewed for the second time. First, the author of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children would recant their disclosure (whether they would deny the incident after telling the truth of about what happened to the doll), and also examined the features of the child's voluntary reports, that is, the degree of their honesty. The findings of the experiment indicated that there were age-specific differences in the frequency of recantation, meaning that older children (8-9-year-olds) showed a stronger tendency to maintain their recantation in the second interview than relatively younger children (6-7-year-olds). Furthermore, children who received supportive responses from their mothers regarding the disclosure demonstrated more honest reports compared to those who received unsupportive responses from their mothe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ssist the understanding of the effects of social-motivational factors on the process of children disclosing the truth when voluntarily recalling a negative incident that they had experienced and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in legal aspects.

Key words : child memory, parental supportiveness, recantation, disclosure, child's testimony